되는것도 안되는것도 고정되지 않으니 굴리는 운전수에 달려 있다

☞ A31면에서 계속

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다 한 것은, 오고 가기만 하면 뭘 합니까? 교류가 돼서 우리가 맛을 봐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이익을 봐야 되고, 회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본다 듣는다 또는 가고 올 수 있다, 그 마음을 서로가 교환하고 알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다 이럴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통신력과 광력, 전력, 자력이 충만히, 우리가 지수화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만히 교류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나 우리 살아나가는 계발의 문제라든가, 또는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건데, 깨달으면 한계가 없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계가 있는 것만 알지 마시고 한계가 없는 것도 좀 아셨으면 하는 겁니다. 무한량, 한계가 없이 영원하다는 그 문제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혜를 가지시라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멀리 있는 것과 우리가 교류가 되지 않는다면, 벽이 쌓아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난을 가겠습니까? 내 집이 망가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면 어디로 가서 얻어먹겠습니까? 또 재료가 없다면 어디서 나서 쓰겠습니까? 이런 거 세 가지만 말해도 우리는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충만하고 교류가 될 수 있고 벽이 없고 그렇다는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인데, 그럼 몸하고 지구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몸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주인이 없으면 얼른 망가질 거고, 내가 깨달아서 주인이 있다면 내 몸도 고쳐서 쓸 것입니다.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벗고 싶으면 벗고 말고 싶으면 말겠죠.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 옷을 벗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한계가 있듯이 그럼 지구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겉껍데기가 있고 속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셋째 번에 아주 그 얇은 껍데기가 우리 뱃가죽에도 있듯이 또 있습니다. 별성도 껍데기를 벗으면 새 빛이 나면서 다시 살듯이, 인간도 이 껍데기를 벗고서 다시 또 몸을 바꿔 가지고 다시 나오는 이치에 의해서 우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몸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고, 났다가 다시 꺼지고 이러는데, 이러한 혹성이나 저러한 별성 같은 거는 이것이 꺼멓게, 예를 들어서 그 껍데기를 벗으면서 그대로 속에서 새 빛이 다시 날 수 있는 것이 그게 한계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당장 급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오억 년이 가든지 십억 년이 가든지 일억 년이 가든지 그건 한계에 따라서 어느 때 이렇게 되고 어느 때에 요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건 예언이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럼 그게 못 미더우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정감록에 말입니다. "물에서만 배가 다니는 게 아니라 땅으로도 배가 다니고, 땅 위에는 거미줄이 얽히고, 그 거미줄을 따라서 배가 둥둥 떠다니고 공중으로도 나중에는 배가 떠다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친 놈, 미친 소리, 허공 잡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해 놨어도 반이 다 타 버리고 말았죠. 누설이 된다고 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또 박사들은, 몇백 년 전 박사들이 '지구가 돈다'고 하니 미친놈이라고 했다죠. 여러분은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쳤던가요? 너부터 알라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고 한 소크라테스도 미쳤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미쳤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한 대로 지금은 그 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다 우리가 발전이 되고 능력이 생겨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라."

> 예를 들어 이 물 한 컵에 있는 물방울이 악인이라 한다면
> 아주 악한 악인이라도 그걸 내 물 그릇에 넣어서
> 같은 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행입니다.



한 뜻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했든 했든 스스로서 알게 되고, 스스로서 계발하게 되고, 스스로서 그런 심성 과학이 발전이 되고, 천체물리학이 발전이 되고, 천문학이 발전이 되고 이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이 아니다.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가지고 있느니라." 했다면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언제나 얕보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이 보고 이럽니다.

오늘도 염불하셨죠? 염불하시는데 내 마음이, 한마음이 즉 관세음이고 지장이고, 독성이고 산신이고, 용왕이고 이렇게 일체가 내 한마음에 들었다고 돼 있죠. 그 한마음에서 그 이름이 나가는 거고 한마음에서 씀씀이가 다 가락대로 차원대로 나가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소릴 하냐 하면, 여러분은 말로만 '내가 관세음이고, 내가 부처고, 내가 지장이고, 이 마음에, 그 한마음에 다 들었다는데, 뭐.' 이렇게 꼿꼿이 세우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가 부처니까 인간은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다 부처다' 하는 그 마음만 알고 이론만 알고 있지 진짜 행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공부를 빨리 해야지.' 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시기 이전에 여러분은 자기의 아집이라든가 아상을 놔 버려야 하고, 자기 분수를 지켜야 하고, 또는 시간도 지켜야 하고, 의리도 지켜야 하고, 도의도 지켜야 하고, 사랑도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자만이나 아만을 부리지 말고, 착을 놔야 하고, 욕심을 놔야 하고,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모든 악한 것은 내 마음으로 안아서, 예를 들어 이 물 한 컵에 있는 (법상 위의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물방울이 아주 악인이라고 합시다.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걸 내 물그릇에 넣어서 같은 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행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의 이름에 속한다고 볼진댄 그렇게 넣어서 안아서 녹여 주고, 병자가 있으면 병자가 있는 대로 여기 넣어서 안아 주고, 또 가난이 있으면 내 가난과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마음이라야 되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또 죽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안아서 나를 만들어서 다시 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안을 때, 참 그것은 즐겁고 여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게 될 때에는 밉고 곱고, 너는 잘못하고 잘하고 이것을 따진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살들이 될 수 있는 100%를 가지고 있고 99%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99%다 할지라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다 될 수 있어도 이 행을, 그대로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내가 물건을 다 잃었다' 고 울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 물건을 써서 내가 그 물건으로, 물질로 그 사람한테 갚았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죠. 받지도 못하고 그럴 거를 울고불고해서 몸까지 집까지 망가뜨리고, 살림까지 망가뜨리고, 식구까지 다 파산을 시키고, 그런 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행에 따라서 계율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율을 지키려는 생각을 억지로 낸다면 계율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렇게 행을 해 가지고 나가신다면 그대로 천 가지 만 가지 이 세상의 계율과 질서를 다 지키면서 모순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여여하게 자유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마 이름 없는 부처겠죠. 그러니 그 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처가 되려고 애를 써도 그 행이 그럴 때는 안 됩니다.

왜 이 바다의 물을 마셨다 내놨다 할 수 있는 부처님이 계셨느냐? 모든 일체 중생들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일체 중생들을 다 내놓고 자기도 일체 중생들과 같이해도 줄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방울로 비유를 했는데, 얼마나 천차만별로 그 생명체들이 많으며 모습들이 가지각색으로 많습니까? 새로 온 분들도 있지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들어둬도 손색이 없다고 보기에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벌써 내 마음속에, 한마음 주처의 주인공에다 '내 주인공밖에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내 주인공밖에는 나를 형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뼈와 살을 받아서 이 집만 받아 가지고 나온 거지, 악업과 선업의 그 업식을 통채로 지니고 나온 건 나다. 내가 나를 형성시켜서 나를 이렇게 지니고 나왔다. 전생이 지금 현생이다. 현생에, 전생과 더불어 현생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 과거의 내 이전을 멀리 가서 찾지 말고 나 있는 데서 찾아라.

그렇게 주인공에다 놓고 갈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주 빡빡하고 마르고 척박한 땅에 물을 주고 모든 걸 그렇게 하니까 노골노골해지듯이, 돌도 골라내고 다 이렇게 행으로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고 '아, 이 병도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엎드러지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 놓을 때에 안 되는 것도 거기고 되는 것도 거긴데,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으니 그 굴리는 것은 운전수에 달려 있다. 이리로 가는 것도 저리로 가는 것도 운전수에 달려 있으니 안 되는 거 되는 것을 다 거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다 다 놓고, 되게 하는 것도 너고 또 몰라서 못 쓰는 것도 너니까 그것을 그렇게 놓고 간다면 내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자꾸자꾸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5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불자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불성의 등불,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환히 밝히시고 모두 성불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회
명예이사장 경원
이 사 장 일명
부이사장 경담
상임이사 오원
이 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종 정 대륜
총무원장 혜일

원로회의
원로의원 혜천 현암 법성 법선 경원 승원

중앙종회
종회의장 도정
종회의원 재단이사회 고봉 석경 무착 정암 서현 보은 동철 성운 혜성 백운심 여래자 교구종무원장

종무위원
호계원장 동청 / 감사원장 법광
교육원장 지언 / 호계부원장 지명
문화원장 제법 / 포교부원장 덕산
총무부원장 도허 / 문화부원장 해동
고시위원장 원공 / 총무부장 혜광
선거관리위원장 붕원 / 교무부장 덕운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 해
경기남부교구 지 안
경기북부교구 지 흘
경남교구 덕 운
대구교구 무상심
울산교구 현 산
전북·전남교구 지 명
제주교구 제 법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